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분쟁을 넘어서는 평화의 여정

2008,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Evaluation Workshop
A Journey - beyond Dispute, Toward Peace




- ▶ 일시 : 2008년 9월 26일 오후 2시 - 5시
WHEN: SEPTEMBER 26, 2008
- ▶ 장소 : 장충동 분도교육장
WHERE: BOONDO CENTER, SEOUL
- ▶ 주최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추진위원회
HOST ORGANIZATION: ORGANIZING COMMITTEE FOR
2008,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 ▶ 주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ORGANIZED BY: KCRC WOMEN'S COUNCIL,
WOMEN MAKING PEAC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 ▶ 후원 :  한국여성재단
SPONSORED BY: KOREA FOUNDATION FOR WOMEN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분쟁을 넘어서는 평화의 여정

〈2008,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Evaluation Workshop
A Journey - beyond Dispute, Toward Peace



- ▶ 일시 : 2008년 9월 26일 오후 2시 - 5시
WHEN: SEPTEMBER 26, 2008
- ▶ 장소 : 장충동 분도교육장
WHERE: BOONDO CENTER, SEOUL
- ▶ 주최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추진위원회
HOST ORGANIZATION: ORGANIZING COMMITTEE FOR
〈2008,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 ▶ 주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ORGANIZED BY: KCRC WOMEN'S COUNCIL,
WOMEN MAKING PEAC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 ▶ 후원 :  한국여성재단
SPONSORED BY: KOREA FOUNDATION FOR WOMEN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평가워크숍

분쟁을 넘어서는 평화의 여정

- ◆ 사 회 : 조영희 (운영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 개회인사 : 이선종 (추진위원장, 원불교 서울대교구장)
- ◆ 경과보고 : 유복남 (사무국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국장)
- ◆ 감사선물증정 : 최안진경 (영상물 제작 프리랜서)

- ◆ 주제발표 : 김귀옥 (자문위원, 한성대 교수)
- ◆ 토론
 - 권지희 (여성신문 기자)
 - 남윤인순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이승환 (자문위원, 민화협 집행위원장)
 - 최원형 (한겨레신문 기자)
 - 한정숙 (추진위원, 서울대교수)
-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 폐회인사 : 정현백 (추진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일시 : 2008년 9월 26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장충동 분도교육장
- 주최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 주관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의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후원 : 한국여성재단

목 차

I. 발제문	4p
김귀옥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자문위원, 한성대 교수)	
II. 토론문.....	15p
권지희 (여성신문 기자)	
남윤인순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승환 (자문위원, 민화협 집행위원장)	
최원형 (한겨레신문 기자)	
한정숙 (추진위원, 서울대교수)	
III. 참고자료	27p
1. 진행경과 보고	
2. 대회보고	
3.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조직구성	
4. 해외참가자명단	
IV 문건 및 자료모음	40p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발족취지문	
▣ 선언문 (각국언어)	
▣ 언론에 비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I 발제문

전쟁을 넘어서는 평화의 여정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성찰과 과제-

김귀옥/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자문위원, 한성대 교수

1. 들어가며

○ 문제의식의 출발

- 여성6자회담의 의제 부상
- ;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되면서 다자간 틀 속에서 동북아 비핵화와 평화의 의제가 부상하였으나 회담 과정이나 내용 속 어디에도 여성은 보이지 않음.
- ; 동북아 비핵화와 평화의 의제가 '사람' 없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과정으로 점철되어 비핵화와 평화가 동북아 구성원 전체에게 어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던지는 것인가와 같은 과제는 숨겨져 있음.
- ; 하물며 동북아 비핵화와 평화의 의제 속에 여성주의적 시각은 처음부터 결여되었음.
- ; 2007년 봄,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주요 성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입장과 국제 연대의 틀에서 동북아 비핵화와 평화의 의제를 다루어 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킴.

○ 구체적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진행 과정

- 2007. 5.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 국회의원 및 여성단체 방문 제안서" 제출

1) 제안배경

- (1)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 평화과정에서 여성 가시화 필요
- (2) 평화·통일관련 국제협력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제기
- (3) 한반도/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목소리 공론화 장(場) 필요-여성6자회담과 이를 위한 네트워크 추진
- (4) 2008, 여성6자회담의 개최와 이를 위한 관련국 방문에 여성국회의원과 여성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제안한다.

2) 사업목적

- (1) 여성 활동가들의 글로벌 평화리더십을 육성
- (2)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네트워크를 추진하여 여성들의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평화와 관련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준비
- (3) “2008, 여성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청사진을 준비
- (4) 동아시아의 냉전 종식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화해자로서 평화형성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화
- (5) UN안보리 결의안 1325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형성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여성의 참여기회 및 역할을 확대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의 10대 여성정책과제로 제시된 ‘평화·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를 이룸
- (6) 새로운 연대문화 창출
- (7)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여성평화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

3) 진행과정

- 추진위원회 조직 구성(참고: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자료집, 163-164쪽)
- 해외 참가자 섭외(2008. 1~7월)
-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
- ; 아름다운재단, 아시아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여성재단, GPPAC,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후원
- 초청자와 일반참가자 확정; 6개국 초청을 위한 방문과 섭외
- 몇 차례 세미나, 워크숍 활동
- 2008. 9월 1~3일 회의. 3일 분단 현장 답사, 개성 답사와 함께 도라산 성명서 채택으로 전체 회의 일정 마무리 지음.

2. 회의를 둘러싼 평가와 한계

1) 평가

(1) 동북아 여성 평화 의제를 중심으로 한 첫 자리

- 과거 세계 평화를 위한 여성의 노력(WILPF 등)이나 각 분쟁지역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노력(유고, 이라크 등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등은 존재했으나 '동북아 평화'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여성 모임은 최초임.
-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동북아 냉전에 대한 인식을 제기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과 방안을 제시한 첫 국제 연대 모임.

(2) 여성주의적 평화, 또는 젠더로서 평화의 문제를 이해하는 어려움을 제기

- '여성=평화'라는 인식에 대해 문제 제기(카렌 리 등)와 함께, 왜 여성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의 교감
- ; 여성 역시 포지션에 따라 전쟁이나 국익(기득권력) 옹호의 태도를 여실히 엿보임.
- ; 영국의 전 대처 수상은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을 주도했고,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나 라이스 국무장관 역시 여성의 얼굴로 전쟁을 수출하고 확대했던 장본인들
- ==> 단순한 남녀의 문제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는 함정이 존재함을 상기시킨 것도 중요한 문제제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이 평화를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장과 여성주의적 평화운동의 중요성, 연대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3) 각 6개국의 동북아 냉전과 북핵 문제에 대한 공감대의 확인

- 남성중심적 정치외교적 동북아 냉전적 대결구조와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해 여성들의 관심과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기

(4) 6자 회담이 안고 있는 정치적 접근법이 아닌 운동적 차원의 평화 해법 모색

- 각 단체나 각 사회들의 평화운동을 소개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를 제시함.

(5) 한반도 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시사

- 4개 국의 정치적인 이해 관계를 제외하고 사실상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편.
- 특히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탈북자 문제와 인권, 비핵화 문제로 국제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었을 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역사와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관심의 영역으로 간주됨.

2) 한계

- 이번 회의를 성사시킨 것만으로도 벅차고 소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의 발전을 기대하며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함.

(1) 동북아 평화의 공감대 형성의 부족

- 왜 여성이 동북아 평화를 말해야 하는가를 공감하기 위한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했음.
- ;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공감을 넘어 일본과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과거사에 대한 미청산의 현황과 구체적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동북아 냉전과 군사주의의 구체적인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였음.
- ; 현재 동북아를 연결하는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 문제, 해외주둔 미군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는 활동이 있어야 했음.

(2) 한반도 분단과 냉전 상황에 대한 관심의 미성숙

- 젠더적 관점에서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분단이 어떤 문제를 양산해왔는가에 이해의 노력이 필요함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함

(3) 행사의 성과에 대한 사회화의 노력의 미반영

- 이번 회의 결과를 6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둘러싼 당국간 회담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없음.
- 회의를 성사시킨 것만으로도 벅차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번 회의 결과를 현재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당국이나 6자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침을 세우지 못함.

(4) 국제 연대 운동으로서의 연결 지점이 취약

- 연대 운동은 자기 운동과 외부 운동의 공감대 속에서 연결지점을 찾고 상호 유기적인 활동을 운동에너지를 활성화시켜야 지속성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행사에서 과연 그러한 연대 운동으로서 의미를 공유했는가 불투명하고 성명서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 구체적으로 말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4대 결의 사항은 모두 당국에 요청하는 내용이었고, 나(우리 사회나, 우리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음.

3. 2008 회의의 직접적 과제

1) 성과의 홍보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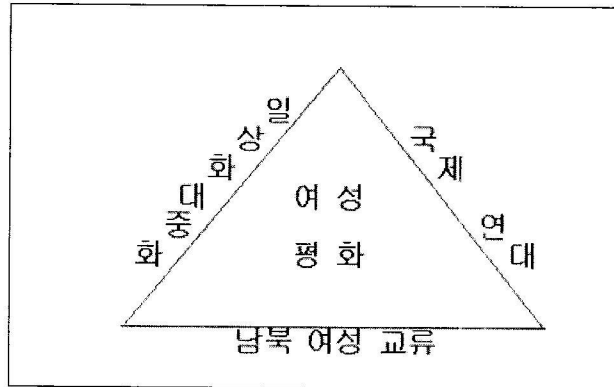
- 1회 회의의 내용과 의의, 진행과정, 성과 등을 담은 홍보 책자를 국문, 외국문으로 발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에 발간할 필요성
- 1안)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백서(가칭)” 편찬
- 2안) 9월 1~2일 행사 자료집의 폭넓은 배포

2) 종이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의 면을 빌어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둘러싼 필요성, 의의, 쟁점과 과제 등을 연재하는 방안

-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글 중에 선별하고 보완하여 글을 기획하고 필자에게 컬럼 형식의 글을 집필하도록 하는 방안
- 제2의 안

4. 차기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위한 과제

- 2008 회의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차기 회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국내적 과제와 남북 과제, 국제 연대적 과제



1) 국내 여성평화운동 차원의 과제

- 국제평화연대운동의 활성화는 국내 지역 여성평화운동의 발전으로 원동력을 삼아야 함.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이 중심이 된 국내 여성 평화운동이 10년의 부단한 활동과 헌신을 통하여 일정 정도 자리매김은 되었으나, 타 운동에 비해 회원 수나 사회적 공감의 여지는 적은 편임.
- 평화운동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운동으로 비춰지거나 까다로운 운동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

(1) 여성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 의의: 여성평화운동이 일반 여성과 시민사회 속에서 인식되고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함.
 - 상황 진단--2008년 실용정부 하에서는 통일교육이 약화된 말할 나위가 없고 평화교육은 아예 폐기되고 있는 상태. 2000년대 통일운동이나 평화운동 모두 평화통일교육과 직결되어 있고, 재정적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대북관련 단체들 역시 통일부의 남북협력교류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형성되어 운동의 자립성 문제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 대중화는 회원 확보를 통한 단체 자립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그런데 회원 확보가 지난 정부 하에서도 어려운 문제였다면 당분간 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회원 확보의 방안 모색은 절대적인 일!!!

- 회원 확보는 결국 사업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늘어나가야 함. 여성평화운동과 교

육을 결합하는 안을 모색. “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화교육을 학교 교육 현장이나 직장들 속으로 치고 들어가야 함.

- * 성교육의 저변 확대 방식을 새롭게 변형한 벤치마킹 사업??
- 여성 평화운동 후속 세대 양성--대학 동아리 만들기
- * ‘대학생겨레하나 동아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 벤치마킹
- 평화의 양성 연대
- ; 평화를 만들기(Peace Making) 위한 여성주의적 입장과 함께 ‘남성=전쟁’의 도식 역시 해체하고 필요시 평화를 중심으로 한 남성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 또 다른 대중화 방안???

(2) 여성평화운동의 일상화를 위한 과제

- 일상화를 위해서는 여성평화운동의 목표가 거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성과 결합한 평화의 수단에 의한 평화의 목표 수립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 문제의식을 일상생활 속에 결합시키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함.
- * 예컨대 ‘남북어린이어깨동무’와 같은 방식의 어린이 통일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 여성 여름 캠프--미혼 직장 여성, 50대 이상 여성층 등의 틈새시장 치고 들어가기; 분단 현장 답사 프로그램 등
- 또 다른 일상화 프로그램???

2) 남북관계 교착 속의 여성운동의 과제

(1) 여여 대화의 지속화

- 2000년 여성통일운동 과정에서 진보-보수 여성 단체들의 대면 지점이 조금 넓어짐.
- ;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운동에 대한 보수적 시각 확산으로 6.15, 8.15, 10.4 행사들이 위축되면서 진보-보수 여성 단체들의 관계 역시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 노정
- ; 보수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진보-보수 여성들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2) 대북 지원 사업과 대화 교류 사업의 지속화

- 남북교류기금 확보가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대북 교류를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벌여나갈 필요성 대두
-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성 교류 자체보다는 인도적 지원 사업과 교류 사업을 매치시켜 나갈 경우 더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임
- ; 북한의 탁아소, 고아원, 즉 '육아원', '애육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중앙 및 지역 단위 여맹과 지속적인 교류 사업 전개

(3) 여성주의적 6.15-10.4 기념 사업 전개

- 6.15-10.4 선언에 대하여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필요성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하며, 남북 여성 교류 행사를 시도하거나 성명서 발표 등을 지속화할 필요
- 그밖에 남북 공동의 행사, 교류협력 사업에서 여성의 지위 확보와 역할 증진 노력의 지속화

3) 국제 연대 운동 차원의 과제

(1) 여성평화운동의 국제연대를 위한 과제

- 전략: 여성평화의 국제연대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여성 평화 운동의 보편성과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결합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듯.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예, 필리핀의 가브리엘라 벤치마킹. 미군 기지 해당 지역국의 여성 초청(참가비 자기부담) 하여 지역적 문제와 공동의 문제를 공감하고 이슈 파이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현장 답사 프로그램

- 학술토론회 위주 보다는 토론회를 통한 의견 교환과 함께 현장 답사를 통한 실감의 공동체 형성
-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분단과 전쟁, 신자유주의 문제를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나눔
- 분단 현장 답사
예) 미군기지, 군산 아메리카타운, 평택 등, DMZ, 분단 철책 기행
- 전쟁 현장 답사

예) 거창, 금정굴, 노근리, 문경, 제주 등 전시 민간인 학살 현장 답사

- 신자유주의의 최전선 답사

예)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답사, '아시아의친구들'(국제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여성 관련 단체)

(3) 국제 GO와 NGOs에서 한국 및 남북여성의 활동 증진

- 2009년 유엔 북한 인권 보고 문제에 대한 여성평화세력의 입장 개진

- 국제적 대북 지원 사업에서의 한국 여성의 노력

- 국제 기관의 한반도 분단과 냉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정보 공유 노력

(4) 그 외 아이디어???

5. 열고 나가며

몇 사람들의 희망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다. 안일한 삶은 희망을 이룰 수 없다. 여성이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자 결단을 내릴 때,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을 해야 한다.

II 토론문

▣ 토론문 1

여성평화 국제연대 길잡이 역할 해주길

권지희 여성신문 기자

한국 여성단체들의 제안으로 올해 9월 성사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동북아 평화논의에 새 흐름을 제시했다.

첫째, 당연하게 여겨졌던 정부와 남성관료 중심의 논의구조에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최선의 테이블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 중심의 대화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진다. 시민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대중적 역량이 뒤따랐을 때 정부 논의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쟁과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여성이었다. 누구보다 평화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지금의 6자회담 논의구조는 '절반짜리'에 불과하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6자회담 개최국 정부와 여성들에게 평화 형성자이자 화해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

둘째,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 여성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6자회담 개최국은 서로 다른 체제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동북아 평화라는 거대 담론에 모두가 동의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과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총론은 쉬운데 각론이 어려운 셈이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과 폭력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군의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는 여성들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이해관계와 외교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제 여성연대의 활성화는 각국 여성단체들이 자국에서 보다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성 평화운동의 파이를 넓혀 6자회담 테이블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성과보다 과제가 더 많다.

첫째, 동북아 평화논의에 여성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설득과 대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간담회 자리가 있었다. 몇몇 기자들이 동북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안보 담론이나 6자회담에 대해 나름대로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는 기자였음에도 설명을 듣는 그의 얼굴에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통일 관련 매체의 기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구체적으로 기사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통일 담론을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는 것에 어색함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사실 진보적 평화운동가들도 다르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준비하고 추진한 여성단체들조차 자기 논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는데 아직은 역부족이지 않나 싶다. 행사 팸플릿이나 자료집을 보더라도 단어의 한계가 드러난다. 이 같은 일부 몇몇 단어만으로는 대중은 물론, ‘같은 편’인 남성 활동가들조차 설득할 수 없다.

둘째, 국내 여성 평화운동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언어의 부족은 활동의 부족을 의미한다. 사실 한국의 여성 평화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단체의 숫자도 미미하다. 활동가나 회원 숫자도 태부족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성사시켜낸 저력이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대중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여성들에게조차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은 어색한 주제 중 하나다. 지난 9월 26일 열린 평가 워크숍에서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들, ▲상대적으로 육아·가사에서 자유로운 미혼 직장 여성이나 5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분단 현장을 답사하는 ‘여성 여름캠프’ 운영 ▲여성 평화운동을 이끌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캠페인 추진 ▲가칭 ‘여성평화교육원’을 설립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처럼 학교교육 현장이나 직장인들에게 평화교육을 확대하는 방법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 여성연대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행사 중 하나로 한·일 여성 국회의원 간담회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열렸다. 6자회담 개최국 여성의원들의 모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이 의원은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자고 말했다.

이를테면, 자국에 돌아가자마자 동료 여성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존재를 알리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불참한 국가의 여성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산하에 여성의원 모임을 만들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사실 다양한 의원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활동은 미미하다. 거의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날 때가 많다. 자신이 주체가 돼 ‘동지’를 만들지 않으면 이 모임도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도 마찬가지다. 이번 모임이 ‘성과’가 되려면 행사 외에도 상시적인 만남과 교류가 필요하다. 각국의 여성들을 결집시킬 주체도 필요하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라는 조직이 있다. 여성부가 만든 한인여성 네트워크 조직이다. 물론 자국 내에서 한인여성의 결집이나 파워는 너무나 미약해서 올

해로 13회를 맞고도 여전히 과제가 많긴 하다. 하지만 이들의 네트워크 방식은 아이디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코윈은 지부로 운영된다. 각 나라의 한인여성회가 지부가 되고, 지부장이 연결고리를 맡는다. 3년마다 1번씩 지역 담당관이 임명되는데, 이들은 상시로 모여 교류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연다. 지난해에는 재단도 출범시켰다. 전체 행사는 매년 한국에서 열린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도 상시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1인 또는 1단체를 '지부장' 혹은 '담당관' 형태로 지정하고, 자국의 여성들을 결집시키고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들이 상시적으로 테이블을 가져 교류와 활동을 위한 논의를 갖는다. 모임이 활성화되면 보다 고위급 인사를 영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얼굴을 자주 맞대야 이해가 넓어지고 공감을 이룰 수 있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함께 하는 이들도 많아진다. 동지가 늘어날수록 활동은 힘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세계 여성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동북아 평화논의에 여성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 토론문 2

남윤인순(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함께 준비하며 치러낸 한 단체의 대표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1. 대회 방식에 대하여

- 1)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등 주관 3 단체가 있었으나 역할 분담이 충분히 되지 않았고 책임의 대부분이 사무국으로 집중되었다. 이는 컨소시엄, 네트워크 방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 2) 다음 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보완된 책임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방식이 좋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대회 명칭에 대하여

- 1) 2007년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이 4개국(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방문하여 각국의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여성의원들에게 제안하고 또 대회를 추진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던 대회의 명칭은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한이 불참하게 됨으로써 대회의 명칭은 <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로 정해졌다. 다음 회의부터는 북한도 함께 참가하여 명실공히 여성6자회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2)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본 대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 3) 내년도 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에 역할 주기가 필요하다.

3. 대회 이슈에 대하여

- 1) 단지 북핵문제만이 아닌,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

- 2)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고 남북한 문제를 가지고 동북아 평화에 접근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

4. 대회 홍보에 대하여

- 1) 6자회담 당사국들의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과를 여론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2) 이를 위하여 여성들의 입장과 목소리, 역할 등을 드러내는 포인트 잡기 작업을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5. 재정에 대하여

-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한국여성재단, 아름다운재단, 아시아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GPPAC 등 여러 재단들에서 이 대회에 관심을 가져 주었다.
- 2) 결과에 대한 보고를 비주얼하게 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토론문 3

이승환(자문위원, 민화협 집행위원장)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의 의의

□ 동북아 평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

- 남북관계도 여전히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의 문제는 그 동안 당국의 전유물이었고 시민사회의 관여는 불모지였음.
- 동북아에서 시민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국가보다 더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보이곤 하였음. 이는 국가간 관계에서 형성된 과잉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동북아에서는 영토분쟁이나 역사분쟁에서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더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런 점에서 '2008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당국 중심의 논의에 함몰되어 있는 동북아 평화문제를 시민사회의 의제로 끌어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도 여성이 논의를 선도해나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 '생활과 일상'의 추구는 거대담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그간 여성운동, 여성평화운동이 '생활과 일상'의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음. 이는 중요한 의미 지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활과 일상'의 시각이 정치적 담론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정치과잉'과 대척점이 되는 '일상성의 매몰'이라는 편향으로 빠질 수도 있음.
- 그런 점에서 '2008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생활과 일상'만이 아니라 정치담론과의 연계를 추구하는 한국여성운동의 '균형있는' 시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평화운동은 일국적 기초를 갖는 국제연대운동

- 평화운동은 한 나라의 조건과 구체적 상황에 토대하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연대가 불가피한 운동임. 왜냐하면 평화운동은 인류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운

- 동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운동의 차이는 있지만 그를 넘어서는 보편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만 평화를 위한 내외적 조건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
- 2008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각국의 평화운동적 과제와 함께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통적 운동의 전개 가능성을 모색한 행사로서 국제연대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줌

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평가와 과제

□ 오랜 준비과정, 서툰 행사 진행

- 준비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과정에 비해, 현장의 행사진행은 여러 가지 점에서 미숙함을 드러냄
- 이런 문제는 경험과 인력의 문제이므로 다음 회의서부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됨

□ 북핵문제의 의미가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 공유되는 과정이 필요

-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핵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질서재편이 이루어지는 전환기에 각국의 이해가 표출되는 상징적 문제라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인식이 형성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고 그런 점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예의상 언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의 핵심고리로서 북핵문제를 인식하는 동북아 수준의 '절실성'이 좀더 부각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 평화는 안보의 또 다른 얼굴

- 평화와 안보는 이분법적으로 대칭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통주의의 입장을 벗어나면 매우 상호침투적인 개념이 되고 있음
- 평화만의 언술적 강조는 대중들에게 '이상주의' 혹은 '그들만의 논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현재 한국 평화운동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는 '시민국가'적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 '대안적 안보' 개념의 확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있음
-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에서 대안적 안보에 대한 보다 목적의식적인 강조와 언술의 사용이 고려되는 것이 필요했음

■ 토론문 4

최원형(한겨레신문 기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화협 등 여성단체와 평화운동 단체들이 1년 넘도록 공을 들여 이끌어 낸 이번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흐름에 별다른 계기가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와 숙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핵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놓고 2003년부터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은 의미 있는 출발이었으나 각 국가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등장 초기부터 통일부 존속 문제로 통일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 구축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아 남북관계 경색 우려를 낳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을 두고 정치권에서 체제 급변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 잇단 발언으로 우려와 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사라져버렸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고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실익을 뛰어넘어 어떤 가치를 목표로 잡아야 하는지 제시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힘써온 일본,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의 시민사회 세력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뚜렷한 연대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바람이 단지 힘의 균형을 이룬 정전상태가 아닌 항구적인 평화와 공존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최근 정세로 인해 주요 참여자가 되었어야 할 북한 여성들이 함께 하지

못했음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5개 국가 여성들이 먼저 연대체제를 구축한다면 북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주의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6자회담에 여성 참여의 비중을 높일지, 또 어떤 여성 대표가 참여해야 여성주의적 관점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 국 참여자들이 시민사회와 보다 넓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리라 기대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나라 여성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국경을 넘은 소속감으로 각 나라에서 활동을 벌여야 상징적인 행사가 아닌 구체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진다면, 다음번 모임에서는 '과제와 평가'의 척도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덧붙여, 월프 커스틴 그리백 대표가 지적했듯, 여성이 평화 구축에 더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 안팎으로 전방위적인 여성의 경제·정치력 증진이 필수적입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각 나라의 여성 권익과 영향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토론문 5

한정숙 (추진위원, 서울대학교수)

제 1회 동북아시아 여성평화회의는 여섯 나라 여성대표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향한 염원과 여성들의 국제적 연대를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개최 자체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성공은 확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WILPF 의장 그레백 씨까지 참여하여,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국제연대노력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었다는 점도 돋보였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적, 정신적 지평이 크게 확대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회의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잘 마무리된 것을 축하한다. 여성들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계속 확대되기를 바란다.

특히 개성 여행은 아주 좋은 기회였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개성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평화를 향한 노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으리라 믿는다. 실무자들을 비롯해서, 이 회의의 개최를 위해 애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 회의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런데 이 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더욱 뜻 깊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를 겸해서 몇 가지 소감과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다.

1.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회의개최 사실이 좀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평소에 여성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일반 여성들(혹은 남성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동참을 적극 권유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걸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2. 이 회의의 취지가 여성적 시각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인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이 평화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성명서에 발표된 내용에는 유엔 결의안의 인용만 들어있을 뿐, 여성 고유의 시각, 여성고유의 문제, 평화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성찰은 들어 있지 않다.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성명서에서 제

시된 제안사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할 내용들을 여성들이 모여서 재차 촉구한 것이나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준다. 평화에 대한 여성고유의 시각이 있는가? 평화와 여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성의 시각, 혹은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단지 6자회담에 여성대표가 없으니까,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런 자리를 빌려 '여성도 발언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성들도 발언할 만한 내용을 여성들이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은 여성의 주체성, 능동성 확인의 기회는 될지언정, 이를 넘어서는 절실한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3. 성명서 검토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성명서 어미에 경어체와 평서체가 섞여 있는 것을 보니, 문구 수정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토론자 개인적으로는, 성명서 작성과 검토에 동참하지 못했는데도 성명서를 낭독할 때 낭독자 뒤편에 줄을 서 달라는 주최측의 청을 받고, 이에 응할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간 부족이라는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

4. 회의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일정이 겹친 사람들은 참여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기도 했다. 비용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재원을 좀 더 확보해서 일정을 좀 더 넉넉히 잡았으면 좋겠다.

5.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대표단의 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에 출장도 다녀오고 국제전화도 여러 번 하는 등, 나름대로 애를 쓴 편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되었고, 러시아 대표의 발표문을 러시아 외교관이 낭독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다. 한국의 평화운동가들이 평화운동, 통일 운동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에서 연대의 상대로 미국, 일본 인사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시야를 넓혀서 중국, 러시아 인사들과도 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 번 회의에서는 러시아 측 대표로 <병사들의 어머니회> 대표들도 초청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들의 활동이야말로 한국의 평화운동가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정신에 잘 부합한다.

III. 참고자료

1.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진행경과

1) 2006년 ~ 2007년

- ▶ 2006년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동하던 중,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여성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으로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사업”을 기획
- ▶ 2007년 1월 :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위한 동북아 여성단체 네트워크” 사업 개시
- ▶ 2007년 2월 ~ 6월 : 여성단체 활동가들, 여성국회의원 등과 함께 수차의 준비회의, 자문회의, 워크숍을 통해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2007년 7월 ~ 10월 : 여성단체 대표, 여성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007 한국여성 평화방문단’을 조직하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4개국 방문
- ▶ 2007년 12월 : 동북아 여성평화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한국여성평화방문단 활동자료집’ 발간
- ▶ 2007년 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공동협력으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에 합의

(1) 2007년 한국여성평화방문단 각국 방문 일정

① 중국방문

일정		프로그램
7/15(일)	행사 프로그램 점검회의	
7/16(월)	10:00	중화전국부녀연합회와의 간담회
	12:00	중화전국부녀연합회초청 오찬
	14:00	홍풍부녀심리자문센터와의 간담회
7/17(화)	10:00	가정폭력반대 네트워크 방문
	12:00	가정폭력반대 네트워크와 함께 점심
	14:00	중국인민평화군축협회 방문
7/18(수)	10:00	베이징대학교 부녀연구중심과 간담회

- 구성: 심영희(단장, 평화여성회 부설 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양대 교수)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이경숙(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정경란 (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 김현희 (평화여성회 사무국장)

② 일본방문

일정		프로그램
8/22(수)	17:30	피스보트 방문 및 간담회
8/23(목)	11:15	시미즈 스미코 전 사민당 참의원의원과 간담회 및 온나노 신문과 인터뷰
	16:30	일본 여성단체 지도자와 의견교환 모임 (전국페미니스트연맹 관계자 6명, 시민사회단체 여성지도자 10명 등)
	18:30	일본 여성단체 지도자와 교류회
8/24(금)	10:00	오가와라 마사코 참의원의원과 간담회
	13:40	카나가와네트워크와 간담회 및 활동 현장시찰
	18:30	일본 여성의원과 간담회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 민주당 코미야마 요우코 중의원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8/25(토)	10:00	아오야마 대학 송연옥 교수 만남

- 구성: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미경 의원(민주신당 최고위원)
 김정수(평화여성회 상임대표)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안인숙(대전여민회 부장)

③ 미국

일정	프로그램
9월 18일 (화)	09:30 카린 리의 브리핑,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11:00 한국경제연구소 방문
	13:00 워싱턴주 상원의원 마리아 칸트웰의 보좌관 Jonathan Hale 방문
	13:45 아칸소주 상원의원 브란세 링컨(Blanche Lincoln)의 보좌관 테드 세라피니(Ted Serafini) 방문
	16:30 카롤 요스트 아시아재단 여성세력화프로그램 국장과 간담회
	19:00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모임
9월 19일 (수)	09:30 텍사스주 상원의원 Kay Bailey Hutchison의 Colby Miller 방문
	10:15 워싱턴주 상원의원 Patty Murray의 Andrew Rowe 방문
	11:00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의 Rich Harper 방문
	11:45 뉴욕 상원의원 Clinton의 보좌관 Ann Gavaghan 방문
	13:00 뉴욕 하원의원 Nita Rowey 방문
	14:00 뉴욕 하원의원 Vito Fossella의 Charles W.Estoff 방문
	15:00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Lois Capps의 Michelle Levy-Benitez 방문
	16:00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tration 사무실 방문
16:40 코드핑크 활동가의 집 방문	
9월 20일 (목)	10:30 칼라 코펠 Inclusive Security와 만남
	11:30 Peace x Peace 담당자와 만남
	12:00 Annabel Park 등 재미한국인과 점심
	14:15 일리노이 하원의원 잔 쉬아코브스키 방문
	16:00 미네소타 하원의원 베티 맥코럼 방문
	17:30 윌프 워싱턴지부 노안 드레이크와 대화
	18:30 데나 메리암 Global Peace Initiative of Women과 대화

- 구성: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정경란(평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④ 러시아

일정	프로그램	
10/25(목)	11:00	러시아 여성연합 방문 및 간담회
	19:00	수슬리나 모스크바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면담
10/26(금)	11:30	러시아 평화재단 방문 및 간담회
	16:00	러시아 어머니회 연합 방문 및 간담회

○ 구성

-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한정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2)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의 입장

각국을 방문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 각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화해·협력·평화형성자로서 여성의 역할 강조, 남북여성교류 지지와 연대 요청,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워크의 필요성 설명

- 미국-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여성의 지지와 연대 요청, 북미여성 사이 관계 확대 희망
- 일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일본여성의 지지와 연대 요청, 북일 여성 사이 관계 확대 희망
- 중국-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 격려, 한·중여성 사이 관계 확대 희망
- 러시아-6자회담 러시아 역할 인정, 한·러 여성 사이 관계 확대 희망

(3) 동북아 여성평화네트워크의 목표

-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 남한 여성들의 글로벌리더쉽 형성에 기여
- 국내 여성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 실현을 위한 여성의 참여기회 및 역할의 확대를 다지는 계기 마련하여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
-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파괴적인 냉전구조를 공존과 화해할 수 있는 평화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자각하는 기회 제공

- 동북아시아 여성 사이의 소통과 연대 형성에 기여하여 새로운 연대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
-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개최해 동북아 여성들이 한반도 분단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2008년

▶ 준비기 : 2008년 1월 ~ 4월

준비회의, 자문회의 개최 등을 거쳐 발족식 준비
일본, 미국, 중국 등 코디네이터 단체들과 접촉

▶ 발족식 : 2008년 4월 29일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제1차 추진위원회, 제1차 워크숍 진행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발족

- 추진위원회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로 구성된 3개 단체 컨소시엄의 활동으로 여성단체 활동가, 종교인, 여성국회의원 등 다양한 영역의 남성과 여성지도자들이 참여
-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해외 초청 대상자 선정, 프로그램 구성, 의제 확정 등 대회준비에 착수

(1) 추진위원회

- 제1차 - 4월 29일(화) 오후 1시, 분도교육장
- 제2차 - 6월 26일(목) 오후 2시, 평화여성회
- 제3차 - 8월 19일(화) 오후 3시, 평화여성회

(2) 운영위원회

- 제1차 - 2월 15일(금) 오전 11시, 평화여성회
- 제2차 - 3월 4일(화) 오후 6시, 여성연합
- 제3차 - 4월 1일(화) 오후 1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4차 - 5월 26일(월) 오후 4시, 은덕문화원
- 제5차 - 6월 20일(금) 오후 9시, 평화여성회
- 제6차 - 8월 5일(화) 오전 9시, 여성연합
- 제7차 - 8월 27일(수) 오전 7시 30분, 은덕문화원

(3) 집행위원회

- 제1차 - 3월 4일(화) 오후 4시, 여연
- 제2차 - 6월 30일(월) 오후 3시, 평화여성회
- 제3차 - 6월 30일(월) 오후 3시, 평화여성회
- 제4차 - 7월 4일(금) 낮 12시, 평화여성회
- 제5차 - 7월 16일(수) 오후 4시, 평화여성회
- 제6차 - 8월 1일(금) 오후 6시, 오후 6시, 평화여성회

(4) 자문위원회

- 제1차 - 3월 20일(목) 오후 6시, 평화여성회
- 제2차 - 3월 24일(일) 오후 6시, 평화여성회
- 제2차 - 3월 11일(화) 낮 12시, 평화여성회

▶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준비 및 평가 워크숍

(1) 제1차 워크숍

- 일시: 2008년 4월 29일(화) 오후 3시-5시
- 장소: 장충동 분도교육장
- 발제: 정현백(추진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정경란(집행위원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조성렬

(2) 제2차 워크숍

- 일시: 2008년 8월 5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장소: 여성연합 회의실
- 발제: 김연철(한겨레 평화센터 소장)

(3) 제3차 워크숍(평가워크숍)

- 일시 : 9월 26일(금) 오후2시~5시
- 장소 : 장충동 분도교육장
- 발제: 김귀옥(자문위원, 한성대 교수)

- 토론: 권지희(여성신문 기자)
 남윤인순(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승환(자문위원, 민화협 집행위원장)
 최원형(한겨레신문 기자)
 한정숙(추진위원, 서울대 교수)

▶ 기자간담회

(1) 1차 기자간담회

- 일시 : 8월 25일(월) 정오
- 장소 : 파이낸스빌딩 용수산
- 참석 : 정현백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회 관계자,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여성신문, 미국의 소리, 말, 통일신문, 통일TV 등 언론사 기자

(2) 2차 기자간담회

- 일시 : 9월 2일(화) 정오
- 장소 : 여성플라자
- 참석 : 이선종 추진위원장 등 추진위원회 관계자, 해외참가자, 연합뉴스 등 언론사 기자

2.대회보고 “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 일시: 2008년 9월 1일(월) - 3일(수)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개성
- 참석자: 연인원 320여명
- 프로그램

일정(date)	프로그램(program)	장소(place)
9월 1일(월)		
6:00- 8:00 pm	환영만찬	여성플라자
	사 회 : 이정옥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	
	환영사 : 이미경 민주당 국회의원	
	축 사 :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건배사 : 각국대표	
9월 2일(화)		
8:00- 9:00 am	등록	여성플라자
9:30-10:15 am	개막행사	
	사 회 : 조영희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운영위원장	
	개회사 : 이선종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	
	축사 1 : 변도운 여성부장관	
	축사 2 :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축사 3 : Kerstin Greback WILPF 대표	
10:15-12:00 am	주제 I : "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다"	
	사 회 : 최영애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	
	중 국 : Zheng Hong	
	일 본 : Shimizu Sumiko	
	러시아 : Lebedeva Nina Borisovna	
	미 국 : Karin Lee	
	한 국 : 남윤인순	
	질의응답	

12:00- 1:30 pm 점심식사

1:30- 5:00 pm 주제 II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의 방향"
 사 회 : 이문숙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주제발제 I : Kerstin Greback WILPF 대표
 주제발제 II : 정현백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
 토론요약
 질의응답

3:20- 3:40 pm 휴 식

3:40-5:00 pm 분과별 모임

1. NGO group 여성플라자
 사 회 : 이문숙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운영위원장

2. 여성의원 간담회 국회
 한국측 : 이미경 민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일본측 : 마사코 의원, 미쯔이 전 의원

6:00-8:00 pm 문화교류 은덕문화원
 사 회 : 조영숙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
 만찬 : Garden Party
 문화행사

9월 3일(수)

5:30 am 서울 출발

7:00-6:00 pm 분단체험 스터디 투어 개성(박연폭포, 선죽교, 고려박물관 등)

6:30 pm 폐회행사 남측출입국사무소
 사 회: 김금옥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집행위원장
 폐회인사 : 조영희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성명서 채택
 동북아평화 평화를 위한 연대의 끈 잇기 퍼포먼스

3.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조직 구성 (가나다순)

◆ 고 문

김상근(전 민주평통위원장),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도위원), 김인숙(불교여성개발원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효재(여성학자), 정세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조화순(여성목회자), 지은희(덕성여대 총장), 함세웅(카톨릭 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추진위원회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정현백(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원철(홍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백승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신연숙(21세기여성포럼대표, 여기자협회장), 신혜수(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한양대교수), 오세향(천주교 장상수녀회 회장),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대표), 이강실(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이김현숙(전 적십자 부총재), 이명신(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상임대표), 이문숙(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희(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순(대전평화여성회 대표), 이정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강자(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진화(전교조 위원장), 조순태(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감사), 조영숙(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소장),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천준호(KYC대표),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영선(세계평화여성연합 이사), 최영애(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최일숙(변호사),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정숙(서울대 교수)

● 추진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정현백(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운영위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문숙(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위원장),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집행위원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정현곤(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 집행위원

김은경(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김현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 이현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홍보팀 부장)

● 사무국장

유복남(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국장)

◆ 자문위원회

구갑우(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지연(에너지연구원, 연구원), 박건영(카톨릭대 교수), 백준기(한신대 교수), 신호숙(북한대학원 겸임 교수), 윤덕희(명지대 교수), 이경숙(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명자(동국대 대중문화연구소 연구원), 이미경(민주당 사무총장),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이우영(한신대 교수), 이정남(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정미애(국민대 일본연구소 교수), 최지영(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황금명륜(희망나눔센터 사무국장)

4. 해외참가자 및 연락처

◇ China

- * **Zheng Hong:** (e-mail: zhenghong@cango.org)
Coordinator of public relations department of CANGO, in charge of the international peace issue with GPPAC
중국국제민간조직합작촉진회 홍보 코디네이터, GPPAC 국제평화 담당
- * **Zhai Yan:** (email: huizeren@126.com)
Director of Beijing Huizeren Volunteering Development Center
북경 휘제렌 자원개발국 소장

◇ Japan

- * **Shimizu Sumiko:** (e-mail: sumikoshimizu@nifty.com)
Former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ors, Regular Advisor, Japan Women's Council
전참의원 의원,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부인회 회장
- * **Koizumi Kiko :** (email: nprfn585@ybb.ne.jp)
Peace-builder, Japan Women's Council
평화활동가,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부인회 사무국장
- * **Misu Cho:** (e-mail: misu@peaceboat.gr.jp)
East Asia Division,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Peace and Green Boat
동아시아 한일관계와 피스 앤 그린보트 담당
- * **Watanabe Rika:** (e-mail: rika-w@peaceboat.gr.jp)
International Division on GPPAC Northeast regional Secretariat, Peace Boat Japan
GPPAC 국제국 동북아 담당, Peace Boat
- * **Mitsui Mariko:** (e-mail: mariko-m@qaz.so-net.ne.jp)
Journalist Feminist Advocate, Former Assemblywoman
저널리스트, 페미니스트 의원연맹
- * **Ookawara Masako:** (e-mail: shioda@ookawaramasako.com)
Congresswoman(Democracy Party), Member of the House of Councillors
참의원의원(일본내 최다득표 의원), 민주당의원

◇ **Russia**

* **Lebedeva Nina Boresovna:** (e-mail: wur@newmail.ru)

**Board member of Women's Union of Russia, Leading Scholar at the
Institute of Eastern Studies of Russian Academy of Sciences**

러시아여성연합 운영위원, 러시아인 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수석연구원

◇ **USA**

* **Karin Lee:** (e-mail: klee@ncnk.org)

Secretary General,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US)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

* **Anabel Park:** (e-mail: parkinstein@gmail.com)

Peace-builder

재미동포 여성평화활동가

◇ **WILPF**

* **Kerstin Greback:**(e-mail: kerstin.greback1@rixmail.se /www.wilpf.ch)

President of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윌프(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연맹) 대표

IV 문건 및 자료모음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추진위원회> 발족취지문

우리는 지금까지 식민지와 전쟁, 냉전과 분단을 경험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였다. 우리의 경험은 평화가 곧 생명이며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염원이자 보편적 인간권리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여성의 발전을 위한 활동임을 잘 알고 있다.

남북 정부가 각각 수립된 지 60년, 이 시대의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이 해체되지 않고 철조망이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다. 한반도 정전협정은 남북만의 분단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분단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이 분단을 넘어서 화해와 협력의 끈을 잇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고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새 정부 등장이후 파생된 긴장과 갈등 속에서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여성들은 고통과 대립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더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안보체제 형성을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을 논의하는 6자회담은 중요한 평화협상의 장이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의 장에서 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과 평화협상 및 평화합의 이행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요구한 'UN안보리 결의안 1325'의 실현이 절실히 필요하다. '평화와 갈등의 금지·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여성들이 확실하게 개입하는 것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구의 절반인 여성을 배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는 없다. 평화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정책결정능력, 리더십, 교육적 기회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경험, 재능과 통찰력을 사 용함으로써 성평등과 여성 세력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는 2008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금강산에서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 동북아시아에서 식민지와 냉전의 경험, 그리고 체제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여성들 사이에 신뢰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 평화실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 한반도와 동북아 실현과정에 여성의 적극적인 기여를 추동하고자 한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추진위원회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였지만 향후 다양한 여성단체와 평화실현에 동참하는 시민사회, 평등평화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의원들과 함께 가고자 한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파리에 이르는 꿈을 꿀 것이다. 한 사람이 모이면 꿈이지만 여럿이 모이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오늘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알린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식민지, 태평양전쟁, 분단이 가져온 억압과 고통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상처를 보듬고 신뢰를 쌓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자 한다. 인종, 민족, 종교, 역사적 차이와 국경을 넘어 동북아여성들을 만날 것이다. 만남을 통해 화해의 싹을 틔우고 협력의 공동체로 첫발을 딛고자 한다. 우리의 시작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여성들의 대장정의 출발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내외 여성들 및 시민사회와 더불어,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2008년 4월 29일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추진위원회

■ 선언문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참가자 선언문

우리 여성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폭력문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 우리는 비군사적 외교노력을 통해 6자회담이 북한 핵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한 역사적 쾌거를 이룬 것을 치하하는 반면, 2007년 2월 15일 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양자간 그리고 지역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6자회담의 당사국에서 각각 모인 우리 여성들은 6자회담의 지속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6자회담의 협상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 2000년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은 이미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및 평화건설 과정에서의 여성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평화와 안보의 증진과 유지를 위한 노력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온전한 개입의 중요성의 강조”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해, 가치, 요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며, 여성주의적 관점은 평화실현의 과정에 인간안보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여성이 6자회담에 시민의 일원으로서, 민간단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곧바로 이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위한 항구적인 발판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6자회담 당사국에게 요구한다.

- 1)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을 즉각 이행하라.
- 2)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추진하라.
- 3)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
- 4) 북한에 대한 시급한 인도주의적 요구에 즉각 대응하라.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의 입구에 선 역사적인 오늘, 우리 여성들은 상시적인 여성평화네트워크의 건설과 지속을 위한 연대를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2008년 9월 3일

남북 분단선 도라산 역에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중국어>

2008 东北亚妇女和平会谈 共同宣言

我們婦女為東北亞的和平、穩定和世界的非暴力文化做出貢獻而匯聚一堂。本來六方會談的各國的婦女代表都要參加本屆會議，而北方的代表并未參加，對此感到遺憾。我們希望北方的代表能够參加今后的會談。

六方會談不是通過武力，而是通過外交手段為解決韓半島核危机邁出一大步，我們對此表示熱烈的歡迎。而2007年通過的“2. 13協議”并未全面履行，六方會談各國之間仍存在分歧，我們對此感到遺憾。

最近在東北亞地區軍事主義蔓延、軍費增加，我們作為各國的婦女代表對此表示憂慮。我們支持六方會談繼續下去，而六方會談在協商過程中并未充分保障婦女代表的參加。聯合國安理會2000年通過的1325号決議強調，“婦女在預防和解決冲突及建設和平方面起重要作用，婦女平等參加和充分參與維持和促進和平与安全的一切努力至關重要。”

我們相信為了實現超越國家利益的真正的和平，必須考慮婦女的利益、价值、要求。在實現和平的過程当中，婦女的看法一定會為實現人類安全起到重要作用。若我們婦女作為六方會談的市民、非政府組織和政府机构的一員能够積極參加六方會談，那么一定會為實現東北亞的穩定与合作打下堅實的基础。

我們敦促所有六方會談與會國政府為了實現韓半島的和解与東北亞的可持續和平，將決議內容付諸實施。

敦促立即履行聯合國安理會的1325号決議案。
敦促尊重六方會談的結果。
敦促為實現東北亞的真正的和解做出努力。
敦促早日提供對北韓的人道主義支援

具有歷史性意義的今天，我們在東北亞的矛盾和分裂的象征非武裝地帶宣布“我們將為增進東北亞的和平、建立常設性婦女網絡將會繼續合作。”

2008年9月3日

2008東北亞婦女和平會議與會者

在南北韓的分界線都羅山火車站

<일본어>

2008、北東アジア女性平和會議 出席者 宣言文

我々は、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そして、非暴力文化を願い、世界各地から集まった。我々は、非軍事的な外交努力を通じ、6カ国協議が、北朝鮮の核危機を賢明な方法で解決するという歴史的な快挙を成し遂げたことをたたえる一方、「2007年2月15日 合意」の完全な履行が遅れている兩國間、そして、地域間で葛藤が続いていることを懸念する。

6カ国協議の当事国から集まった我々は、6カ国協議の継続を訴える。そして、我々は、6カ国協議の交渉過程で、女性の代表性がきちんと保障されていない現実を嘆く。2000年の國連安保理1325決議案には、既に、「葛藤の予防と解決及び平和づくりの過程で女性が果たす役割の重要性、そして、平和と安保の増進や維持に向けた取り組みにおける、女性の同等な参加や積極的な介入の重要性の強調」という文言が盛り込まれている。

我々は、眞の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は、女性の理解、価値、要求が欠かせない上、女性主義的な観点が、平和を実現する過程で人間安保を統合させることに貢献することを確信する。女性が6カ国協議に市民の一員として、民間団体の一員として、そして、政府代表団の一員として積極的に参加することは、まさに、この地域の安定と協力に向けた恒久的な土台の構築に寄与するだろう。

ここで、我々は、6カ国協議の当事国に次のように要求する。

- 1) 國連安保理1325決議案を直ちに履行すること。
- 2) 北東アジアの非核化を推進すること。
- 3) 北東アジアの眞の和解に向けて努力すること。
- 4) 北朝鮮に對する、差し迫った人道主義的な要求に直ちに對応すること。

北東アジアの葛藤と分斷の象徴である非武装地帯の入り口に立っている歴史的な木目、我々は、常に女性平和ネットワークづくりや継続に向けた連帯のために努力していく。

2008年 9月 3日

南北 分斷線 都羅山驛にて

<2008、北東アジア女性平和會議> 参加者一同

<러시아어>

Заявление участниц «Конференции женщин за мир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2008 г.»

Мы, женщины разных стран мира, собрались здесь во имя укрепления мира,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отказа от применения насиль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Мы сердечно поздравляем с достижением исторически важного прогресса в реш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ядерного кризиса невоенным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утем в рамках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Между тем, мы выражаем нашу глубок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в связи с задержанием полного выполнени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отраженного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от 15 февраля 2007 года и прекращением двухсторонн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ов.

Мы, женщины от имени стран-участниц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ризываем продолжать шестисторонние переговоры. Мы огорчены необеспечен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женщин в ходе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Резолюция 1325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т 2000 г. явно подтвержд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женщин в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конфликтов, в миростроительстве и подче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их равноправного и всестороннего участия в усилиях по поддержанию и содействию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ы подчеркиваем, что в целях достижения подлинного мира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понимание, ценность, требования и точка зрения женщин, что внесе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интеграц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е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в процессе реализации мира.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женщины в процессе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в качестве гражданина, члена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делегации, что послужит прочной базой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мир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м регионе.

Мы призываем стран-участниц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к следующему :

- 1) Неотложно выполнить Резолюцию 1325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 2) Реализовать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ю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3)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к достижению подлинного примирения.
- 4)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тветить на требование о срочн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Сегодня мы, стоя на входе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являющейся символом конфликта и раздора в СВА, вновь заявляем наш решение стремиться к объединению усилий для созд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его механизма женщин во имя мира.

3 сентября 2008 г.

На станции До Ра Сан -разделенны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Участницы «Конференции женщин за мир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2008 г.»

<영어>

Declaration of Women's Six - Party Talks Conference Participants

We, women from around the world, have gathered together with the hope of bringing peace and stability to North East Asia and to contribute to a global culture of non-violence. We applaud the diplomatic non-military approach of the Six - Party Talks that has brought historic progress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hile regretting the bilateral and regional issues that continue to delay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February 15th 2007 Agreement.

We, women from each country, support the contribution of Six - Party negotiations. However, we also note the striking under-representat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Six - Party negotiations. In 2000, UN Security Council passed Resolution 1325 recognizing "the important role of women i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and in peace-building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ir equal participation and full involvement in all efforts for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peace and security."

We believe that women's interests, values and needs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achieve genuine peace, and that women's perspectives would contribute to integrating human security concerns into the peace process. Women must participate in the Six-Party Process actively as citizens, as members of NGOs, and as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create a permanent infrastructure for stability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We urge all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the Six-Party Talks to:

- 1)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immediately.
- 2) Commit to creating a nuclear free zone in Northeast Asia.
- 3) Work towards genuine reconciliation in Northeast Asia.
- 4) Respond to urgent humanitarian needs in DPRK.

On this historic day, standing at the gateway to the DMZ, symbol of division and conflict in the region, we commit to working in solidarity to build upon and institutionalize a permanent women's peace network.

September 3, 2008

Participants of the <2008,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Dorasan Station at the border of North and South Korea

■ 언론에 비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준비족 발족 -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년 4월29일 한미희 기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가 함께 하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여성6자회의’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현백·이선중)가 29일 오후 서울 장충동 분도빌딩에서 추진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준비위는 9월 1-3일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여성지도자와 한, 미, 일의 여성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다.

준비위는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형성과정에서 화해자이며 평화형성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발족취지문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식민지와 냉전의 경험, 체제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여성들 사이에 신뢰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 평화실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의 비전과 실현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족식 뒤 ‘여성6자회의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열린 제1차 워크숍에서는 ‘2008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읽기’(조성렬 평화재단 이사), ‘국제여성평화운동과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여성6자회의와 동북아 평화형성’(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eoyyie@yna.co.kr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내달 초 개최 -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년 8월8일 한미희 기자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현백,이선종)는 '2008 동북아여성 평화회의'를 다음달 1-2일 서울과 3일 개성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의 여성 비정부기구(NGO) 대표와 전문가, 여성의원 등이 참석해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연대 방안을 논의한다.

첫 날인 1일에는 환영만찬이 열리고 2일에는 각국 참가자들의 주제 발표와 간담회,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3일에는 개성을 방문해 폐회 행사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북쪽도 참여하는 '여성6자회의'로 기획됐으나, 북쪽이 참여 요청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 무산됐다.

추진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를 높여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의 비전과 실현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oyyie@yna.co.kr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서울·개성 개최 - 여성신문(20080814)

993호 [종합] (2008-08-14) 권지희 기자

9월 1~3일 5개국 50여명 한 자리 여성의제 도출 기대... 북측은 불참



커스틴 그레벡
국제여성연맹 회장



캐롤 요스트
아시아재단
여성위원장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당수



헝홍
중국 국제NGO협회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5개국 여성 50여 명이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과 개성에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아닌 여성단체가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시아 평화 논의를 위해 같은 테이블에 마주앉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정현백·이선중)는 정부와 남성관료 중심의 '6자회담'에 대해 NGO단체 여성 지도자 중심의 '여성6자회담'으로 추진했으나 북측의 불참으로 '회의' 형태로 진행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형성과정에서 배제되어온 여성들의 발언권을 높이고, 동북아평화 여성의제를 도출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여성계와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왔지만,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관계가 소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서로 다른 체제와 사고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공동의 비전을 모색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첫날인 1일에는 '동북아 여성 평화의 밤'을 주제로 환영만찬을 갖고, 2일에는 '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다'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 여성연대의 방향'을 주제로 하는 국가별 주제발표와 여성의원·여성단체별 간담회를 연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개성을 방문해 폐회행사를 갖고 공동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측의 참여가 무산됐지만, 개성을 방문해 연대의지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주된 논의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동북아 여성들의 관심 촉구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상호공존체제로의 전환 노력 ▲동북아 평화형성과정에 여성의 참여 보장 촉구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결의안 1325’ 적극 이행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 1325’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0년 10월 3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으로,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이다. 평화 형성과 합의·이행과정에 시민사회, 특히 여성을 포함 시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회의도 이 결의안의 적극적 이행과정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비영리 북한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 캐린 리 사무국장과 미국 아시아재단(AF) 캐롤 요스트 여성위원장, 재미동포 2세 여성평화운동가인 애나벨 박, 일본 참의원 의원을 지낸 시미즈 스미코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부인연락회’ 회장, 일본 국제평화단체인 ‘피스 보트(Peace Boat)’ 스태프인 와타나베 리카, 일본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 의원, 일본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인 ‘전국페미니스트 의원연맹’ 소속 마리코 미쓰이 의원이 참여한다. 또 러시아여성연합 운영위원인 레베데바 니나 브레소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중국 국제NGO협회에서 홍보팀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첡훙, 국제여성평화단체인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ILPF)’의 커스틴 그레백 회장이 방한한다. 한국에서는 정현백·이선종 공동추진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조영희·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조영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대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 이문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등 4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이번 회의를 기획·주도한 평화여성회는 지난해 7월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을 결성, 같은 해 10월까지 연달아 4개국을 방문했다. 오는 9월 방한하는 여성 지도자의 대다수가 이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다.

한편 본지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동행 취재하고, 서울 회의와 개성 폐회행사 현장, 각국 여성대표단 인터뷰 등을 보도할 예정이다.

(swkjh@womennews.co.kr)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개최.. 개성 방문 - 통일뉴스
 그레백 WILPF 회장 등 5개국 여성 지도자 참가
 2008년 8월 25일 (월) 16:24:12 정명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3일, 서울에서 '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의'가 개최된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성 지도자들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장이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위원장, 정현백, 이선정)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환영만찬, 2일 같은 장소에서 '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의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본 회의, 3일 개성 평화기행 등으로 진행된다.

3일째 '개성평화기행'은 국외 참가자 12명을 비롯해 39명이 참가한다. 이후 도



라산 출입경사무소(CIQ)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대의 끈 잇기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커스틴 그레백 WILPF(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회장을 비롯해 오카와라 마사코 일본 민주당 의원, 캐린 리 NCNK(전미북한위원회) 사무국장, 첩홍 중국NGO협회 홍보 코디네이터, 레베데바 니나 브레소나 러시아여성연합 운영위원 등 국외 여성엔지오 대표 및 지도자 13명이 참가한다.

추진위는 당초 '6자회담' 참가국의 여성 대표자들이 모여 '여성 6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불참으로 '동북아여성평화회의'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금옥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올 초에 6.15남측위 실무회담 때 북측 담당자에 제안했으나, 이번 금강산 6.15통일대회에서 '올해는 사실상 참여가 어렵다'

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25일 낮 서울 파이낸스센터 지하 1층에서 정현백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이 기자회견담회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25일 낮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지하 1층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담회에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6자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진행과정에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6자 참가국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추진위원장은 "남북관계가 냉랭해지고 6자회담에서도 남북 대화는 소외된 상황에서 더 염려스러운 것은 새 정부 이후 평화체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민간차원에서라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 여성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공동 주관하며, 첫날 만찬에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백낙청 6.15남측위 상임대표,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이 축사에 나선다.

(☞mijung@tongilnews.com)

여성단체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 - 연합뉴스

"동북아 평화 논의에 '여성주의적' 시각 필요"

2008년 08월 25일 양태삼기자

한·중·일 동북아 국가와 미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북한을 뺀 5개국의 여성 및 평화운동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6자 회담에 '여성주의적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뜻에서 이 같은 형태의 연대체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북한의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개성 관광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와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는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동북아 지역 국가의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를 마련해 9월1-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연다.

정현백 추진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한반도 평화 논의는 애초 북한과 미국의 양자 구도에서 시작해 6자 체제로 바뀌면서 안정을 찾았으나 평화를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은 반영되지 않아 미흡하다"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회의 개최를 추진했으며 6자 회담도 그런 시각에서 출발했다면 크게 다른 결과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커스틴 그레백 국제여성연맹(WILPF) 회장을 비롯해 미국의 카린 리 '전미북한위원회' 사무총장, 레베데바 보레스브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쟈 홍 국가 NGO 홍보부 조정관, 일본의 시미즈 수미코 전 사회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은 불참하지만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회의 준비위 측은 밝혔다.

한국에서는 여성계와 종교계 인사와 단체들이 주축이 돼 참여하며 여성재단과 아름다운재단, 에버트 재단, 아시아재단 등이 회의를 후원한다.

회의는 9월1일 환영 만찬에 이어 2일 오전 '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주제로 6개국 인사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의 방향'을 주제로 그레백 WILPF 회장과 정 추진위원장이 각각 기조 연설을 한다. 이들은 또 9월3일 개성 관광을 한 다음 돌아와 성명서를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같은 뜻을 가진 관련 인사들이 만나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회의를 정례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울러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tsyang@yna.co.kr)

2008년 08월 31일



1일부터 3일까지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다. 여기에는 6자회담 참여국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여성들은 이 회의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성6자회의'라 지칭하기를 좋아한다. 물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이번 회의에 북한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장기적으로 6자회담 당사국 여성들의 연대를 지향한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도쿄에서 최다득표를 한 민주당 참의원 오가와라 마사코와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그레백 회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아시아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GPPAC 등 많은 국제재단 및 단체들이 이 회의를 지원한다.

2003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6자회담은 러시아·북한·미국·일본·중국·한국이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북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평등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이었다. 그래서 여성들도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미 양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진행속도가 느리고, 여기에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만 참여하는 관료들 중에서 몇몇 여성의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그러면 왜 여성의 참여가 중요한가?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은 평화 협상 및 합의 이행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쟁과 무력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이고, 여성적 경험을 통해 평화과정과 방식에 더 성찰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된 독일 통일엔 지속적으로 내부 식민지를, 내적 차별을 만들어냈던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5개국의 여성들이 많은 난관을 헤치며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고 동시에 동북아 평화가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는 데 공감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를 횡단하는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서 여성들이 내는 목소리가 각국의 평화 프로세스를 압박할 것이다. 이 회의는 일회성, 형식적인 국제회의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이고도 정례적인 모임으로의 진전을 기획하고 있다.

지금 여성들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동포를 지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쌀 재고량을 사용함으로써 남측 농민을 돕는 일이라는 점도 망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 여성들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담론에서 '평화' 혹은 '평화체제'라는 용어가 사라진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실용주의·보편주의·상호주의를 표방하나, 평화체제나 평화 프로세스가 전제되지 않은 대북정책은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얼마나 모험적인가?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현대아산이 큰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고, 평화·화해 정책의 실질적 열매인 개성공단사업이 위축되는 것이 실용적 정책이란 말인가?)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모인 여성들은 남북 양측 정부가 상호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화해협력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것을 계속 외칠 것이다. <정현백 | 성균관대 교수·사학과>

동북아 여성 평화회의 참석차 방한 재미교포 '애나벨 박' - 국민일보

2008년 9월1일, 글·사진=김혜림 선임기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언급되길 바랍니다."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1~3일 열리는 '2008 동북아 여성 평화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애나벨 박(40)씨는 1일 미국 하원에서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규탄 결의안(121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어떤 사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21법안 통과를 위한 한인대책위원회인 'HR-121연맹' 전국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미 하원의 결의안을 이끌어내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



다. 9세 때 미국으로 이민간 교포 2세 사회 운동가인 그는 2004년 미국 정부의 관타나모 수용소 인권 유린을 계기로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으며 2006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 의회 증언을 접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지난 3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벌이는 수요 집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과 할머니들

이 한가족처럼 감정을 공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지만 이들을 둘러싼 전투 경찰과 묵묵부답인 일본 대사관을 생각할 때 슬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도록 압박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외교 문제로 채택해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신뢰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참석하는 2008 동북아 여성평화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의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논의하는 모임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주관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3일 개성을 방문한 뒤 도라산역에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 새로운 미디어가 일반인들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실험하고 있다는 그는 요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버락 오바마 캠프에서 홍보영상 제작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미국 정부는 외교 경제 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통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오지 못했는데 오바마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mskim@kmib.co.kr)

<사람들> 커스틴 그레백 국제여성연맹 회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08년 9월2일 양태삼 기자

"여성주의 시각은 평화 정착에 큰 힘돼"

"북핵 6자 회담 협상 테이블에 여성이 없다고 꼬집는 것은 '여성주의' 시각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의 기반은 여성 고유의 양육과 돌봄, 평등에 두고 있으니까요"

2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스웨덴의 커스틴 그레백 국제여성연맹(WILPF)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여성주의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북핵 6자 회담 참여국 가운데 북한을 뺀 5개국의 여성 및 시민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역내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에서 처음 마련됐다.

"6자 회담에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그녀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정치적인 인물에 불과합니다. 요컨대, 여성이 없다는 것은 여성주의적 정책이나 대안이 부족하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그는 보스니아와 다르푸르 등 내전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모자랐기에 전쟁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동독 여성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탓에 시행착오가 컸다"고 분석했다.

그레백 회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이 유교적 전통 탓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 발전과 비례해 여성의 목소리도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져 공직 분야에 여성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정책도 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한다면 결과적으로 평화가 정착한다"면서 "여성주의적 시각은 결국 평화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 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0년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여성이 제시하는 관점을 반영하면 항구적 안보가 보장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 WILPF가 이 회의에 재정적 지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이 회의가 냉전적 체제를 깨고 평화를 구축하자는 뜻인 만큼 유엔이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백 회장은 1990부터 1995년까지 WILPF 스웨덴 지부의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WILPF 회동을 주선했는가 하면 옛 유고슬라비아의 평화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제여성연맹은 191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창립한 이래 반전 및 평화 운동, 여성 참여 캠페인을 주도해왔으며 창립 멤버인 미국인 제인 애덤스와 에밀리 그린 발치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1931년과 194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tsyang@yna.co.kr)

"여성의 힘으로 동북아 평화를"...'동북아 여성평화회의'폐막 - 세계일보

2008년 9월3일 백소용 기자

6자회담국중 北제외 5國 여성단체 참가 '여성 6자회의'... 한반도 평화 방안 논의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동북아여성평화회의'(1~3일)에서 참여자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북핵 6자회담 등에 여성주위적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회의를 장기적으로 6자회담 당사국 여성들의 연대로 키워가기로 합의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가 올해 처음 개최한 이 회의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여성단체 주요 인사들이 모여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평화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6자회담 참가국의 평등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여성 6자회의'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번 회의에는 커스틴 그레백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WILPF) 회장과 레베데바 보레스브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쟈 흥 국가 NGO 홍보부 조정관, 일본의 시미즈 스미코 전 사회당 참의원, 미국의 카린 리 전 북미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실현 과정에 여성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현백 대회추진위원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6자회담에는 여성이 제외되었으며, 독일의 통일 사례를 봐도 여성이 개입하지 않은 통일과 평화체제의 정착 과정은 결국 성별에 따른 '내부 식민지'를 만들어 진정한 내적 통일에 실패했다"며 "파괴적 냉전구조의 동북아 지역을 공존과 화해에 기초한 평화구조로 전환하는 데 여성이 중재자이자 평화 형성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레백 WILPF 회장은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역할과 파트너십'이라는 발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00년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권력 불평등과 불안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6자 회담에 여성 협상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를 고발해 온 시미즈 스미코 전 참의원은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과 일본의 입장,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본은 6자회담 참가국이면서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남북한에 식민지 지배라는 희생을 겪게 한 나라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의 책임이 있고 미국, 구소련과는 2차 세계대전에서 싸웠던 상대국이었다"며 "다른 국가와는 국교를 회복했지만 북한과는 식민지 지배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아 북일관계가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1세기의 평화 창조에는 국가중심주의 및 남성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주민의 참가와 일반시민의 관점을 얼마나 중시하며 성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가 요구된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 창조를 위해서는 국가 간 논의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과 여성의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winia@segye.com)

6자회담에 여성 대표 참여시키라 - 한겨레신문

2008년 9월4일 기사입력 최원형 기자

서울-개성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중·미·러·일 등 엔지오·의원 참여 상시적
'여성 평화 네트워크'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성들의 참여와 연대를 선언한 '동북아 여성 평화회의'가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과 개성에서 열렸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여성 엔지오 활동가, 여성 의원 등이 참가해 '6자 회담 협상에 여성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고 상시적인 여성 평화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여성 평화회의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6자 회담에는 여성 협상가가 거의 없고,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에 여성주의적 접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후 문제 해결, 역사 해석과 영토 경계를 둘러싼 분쟁 등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존하는 만큼 이를 극복하려면 여성들의 상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했다.

평화회의에 참가한 이들은 동북아 정세 분석과 여성 참여 비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규탄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될 때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카린 리 전미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은 여성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0년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일본 네트워크'가 위안부 문제로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을 열어 일왕에게 죄를 따져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례 등을 들며 "일본·아시아·미국 등 여성들의 국제적 공조가 없었다면 결의안 통과는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도 여성들의 국제 연대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얘기다.

일본 사회당 참의원이었던 시미즈 스미코 '조선 여성과 연대하는 일본 부인 연합회' 대표는 "일본 보수주의자들이 한반도 분단과 대립을 자국 군사화의 구실로 이용해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 평화 헌법의 가치

를 동북아 여성들이 함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미즈 대표도 국가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 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했다.

정홍 중국국제민간조직합작촉진회 활동가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6자 회담이 필요하며, 이에 응할 수 있는 북한 쪽 단체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의 레베데바 니나 보리소브나 선임연구원은 “각국 정부에 국방 예산 제한선을 두고 핵무기를 감축하도록 여성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여성 30% 할당제가 제도화돼 있다”며 “6자 회담을 비롯해 전반적인 통일·국방·외교 정책 결정에 여성 참여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화 협상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 △국익을 뛰어넘어 공동의 이익을 꾀하는 여성들의 상시적 연대체 구성 △교류 방문의 확대 등에 의견이 모였다. 케르스틴 그레베크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연맹’ 대표는 여성의 정치·경제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3일 한반도 분단 상황을 살피러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도라산역에서 폐막식을 열고 △6자 회담 당사국 정부에 ‘평화 협상에 여성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즉각 이행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행 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평화회의 추진위원장인 정현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평화 체제라는 말 자체도 듣기 어려워 걱정된다”며 “이번 회의와 선언문 채택이 남북 관계나 6자 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애초 ‘여성 6자 회담’을 열려고 지난해부터 공을 들였으나, 올해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북한 여성연맹이 행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참여하지 못해 회담이 아닌 회의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 이사장은 “국제 연대체를 꾸려 각국 정책 방향에 여성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ircle@hani.co.kr)

케르스틴 그레베크 “평화, 여성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100년의 경험 ‘WILPF’ 케르스틴 그레베크 대표 -한겨레신문

2008년 10월4일자 최원형 기자

케르스틴 그레베크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연맹’(WILPF) 대표는 평화 구축에 여성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보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호 결의안’을 들었다. 2000년 채택된 결의안엔 “평화를 논의하고 평화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의안 통과 뒤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결성된 이 단체가 있다고 했다.

그레베크 대표는 지난 1일 “전쟁·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돌봄의 주체인 여성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며 “평화를 이루려면 여성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스웨덴 여성 엔지오 활동가인 그는 이 연맹 스웨덴 지부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90년대 초반 옛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스웨덴 정부는 ‘여성과 여성’이란 이름의 지원 프로그램을 펼쳤다. 전쟁 중이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금을 모아 건네고 여성 지원센터를 세우도록 돕는 사업이었다. 민족이 갈려 전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지원센터에 있던 여성들은 민족·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난민들을 도왔고, 센터끼리 연대해 정보를 주고받기도 했다. 전쟁 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이나 관료로 진출했고, 평화협정 내용을 알리며 평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아프리카 등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했다.

그레베크 대표는 “당시 스웨덴 여성들은 1달러씩 모두 400만달러를 모았는데, 이는 총인구의 절반 가량이 참여한 셈이었다”며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여성의 힘은 연대할수록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회의에 참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단체의 평화체제 구축 원칙은 ‘전쟁 비용을 다른 가치 있는 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에선 끝없는 군사적 대치 등에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줄이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베크 대표는 “평화를 바라는 여성들이 뭉치면 각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남성 일색인 협상에서도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 여성주의적 관점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며 여성들이 ‘뭉치고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지상중계 - 여성신문

996호 [기획] (2008-09-05) 권지희 기자

여성 평화연대가 새로운 국익 만든다

위기 맞은 정부·남성 '반쪽짜리' 평화 담론 평화형성자이자 화해자인 여성 역할 재논의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개최국 여성들이 참여한 '2008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지난 1,2일 서울대회에 이어, 3일 개성 평화기행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최근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대화 단절과 북핵 불능화 중단 파동으로 6자회담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열린 이번 평화회의는 여성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의 물꼬를 텃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가자들은 3일 남북의 경계선인 도라산역에서 폐막식을 열고, "여성주의적 관점은 평화 실현의 과정에 인간안보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6자회담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6자회담 개최국 정부에 ▲평화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토록 한 유엔 안보리 '1325결의안'의 즉각적인 이행 ▲6자회담 협상 결과 존중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북에 대한 조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시행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매년 평화회의를 개최해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상시적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992년 9월 1일, 고 이우정 선생을 비롯한 남·북·일 여성계 대표 30여명은 분단 이후 민간으로 처음으로 판문점을 넘었다. 이들은 평양에서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후 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농민, 노동자 등 어느 계층이랄 것 없이 남북 간 민간대화 창구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1991년 9월 유엔 남북 동시 가입으로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하지만 성사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지혜를 짜냈다. 남북만의 대화가 어렵다면 일본을 포함해 국제대화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시 이우정 선생이 시미즈 스미코 전 참의원의

원 등 일본 여성의원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여성들



▲ 지난 2일 북측을 제외한 6자 회담 참가국 여성들이 '여성, 동북아 평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의 국제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한 순간”이라고 회고했다. 그로부터 꼭 14년이 흐른 2008년 9월 1일, 서울에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열렸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여성들까지 합세했다. 불참한 북측을 대신해 3일 개성에서 폐막행사도 가졌다. 5개국 여성들은 입을 모았다. 최근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북핵 불능화 중단 파동으로 6자회담이 위기를 맞은 이때야말로 평화 형성자이자 화해자인 여성이 제 역할을 할 때가 아니겠느냐고. 6개국 정부와 남성 중심의 ‘반쪽짜리’ 논의만으로는 힘에 부치지 않느냐고 말이다. 14년 만에 다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참석한 시미즈 스미코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부인연락회 대표는 “92년 평양토론회가 여성의 힘으로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면, 2008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현실을 직시하는 힘과 인간적 공감대로 연대를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새로운 평화운동이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홍 중국 국제민간조직합작촉진회(CANGO) 홍보팀 코디네이터는 여성 국제 연대를 위한 북측 파트너 발굴과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과의 공조를 제안했고, 러시아여성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레베데바 니나 브레소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선임연구원(불참)은 “각 정부들이 6자회담 내에 남성과 동등한 규모의 여성 협상가를 포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여성들의 경험은 조금 달랐다. 분명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평화에 대한 지향이 높지만, 지도자급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신념만큼이나 국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영리 북한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 캐린 리 사무국장은 미국의 전·현직 여성 국무장관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위협적 요소라고 느끼면서도 북의 경제에서 미사일 판매가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응했고, 평화와 안보를 위한 비군사적이고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콘돌리자 라이스 현 장관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선동적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사담 후세인의 총구에서 나는 화약 연기가 원자구름으로 커지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후 이라크에는 그 어떤 핵무기도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캐린 리 사무국장은 “성별에 따라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떤 정부에서 재직하느냐, 혹은 어떤 역사적 중대성을 지닌 기간에 재직하느냐에 따라 여성이라도 자신의 권력을 다르게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방법은 달랐지만 캐린 리 사무국장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의 국제 연대만이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단체와 함께 일하던 1990년대 의무군복무 중 아들을 잃은 한국과 대만 어머니들이 마음으로 만나는 것을 목격했고, 2000년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을 뛰어넘어 연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는 여성들의 교류와 연대는 새로운 이해 증진과 외교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익’을 대신하는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한국에서 열린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개최국을 달리해 매년 열릴 예정이다. (swkjh@womennews.co.kr)

[한·일 여성 국회의원 간담회] 5개국 여성의원 상시모임 추진
 마사코 의원 “여성주의 외교정책 적극 설파할 것” - 여성신문
 996호 [기획] (2008-09-05) 권지희 기자



▲ 동북아의 상황관측을 위해 평화를 미쓰이 전 도쿄도 시의원(민중당)을 국회로 초청해 ‘한·일 여성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지희 기자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오후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참석을 위해 첫 방한한 오카와라 마사코 참의원 의원(민주당)과 전국페미니스트의원연맹 소속의 마리코 미쓰이 전 도쿄도 시의원을 국회로 초청해 ‘한·일 여성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당 최영희·김상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함께했다. 참석 의지를 밝혔던 김금래 한나라당 여성위원장과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상임위 출석으로 불참했다.

한·일 여성의원들은 먼저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각국의 현실부터 진단했다.

마사코 의원은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 남편, 남동생들이 그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며 남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국가범죄가 아닌 전쟁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경 의원도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변화시켰고 지금의 6자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새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 외교를 고집하고 있고, 그 결과 북측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 여성의원들은 이처럼 꼬여버린 남북관계, 북·일관계, 한·일관계를 매듭 지을 해법으로 한·일 여성과 여성의원들의 연대 강화를 제시했다.

최영희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은 남북, 북·일, 한·일 관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갈라진 틈을 메우는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며 “민간 여성단체들이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조직해 평화담론을 생산하듯이 한·일 여성의원들도 지속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의원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6자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만 보던 수준에서 벗어나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 국제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국 여성의원들이 정부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사코 의원도 “앞으로 일본 외교정책이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남은 5년의 임기 동안 여성의 시점에서 일본의 외교 방향을 바꾸도록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미경 의원은 보다 구체적 대안을 내놨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산하에 여성의원 모임을 만들어 상시적 연대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은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매년 개최되니까 의지만 있다면 상시적 만남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의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미국 여성의원들이나 다른 한·일 여성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다음 모임 때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kjh@womennews.co.kr)

[대담] 커스틴 그레백 국제여성연맹 대표와 정현백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공동추진위원장 - 여성신문

996호 [기획] (2008-09-05) 권지희 기자

"남북 여성교류 물꼬 트기 적극 돕겠다"

여성이 안보담론에 참여해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성공해
낮은 단계부터 축적해나가면 비로소 어느 날 변화 맞을 것



▲ 커스틴 그레백(오른쪽) 국제여성연맹 대표와 정현백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공동추진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여성 국제연대를 주제로 1시간여 동안 대담을 가졌다. 이 두 사람은 2일 행사에서 참가자들을 대표로 핵심연설을 했다.

©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100년 전통의 국제 여성평화단체인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ILPF)' 커스틴 그레백 대표와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공동추진위원장인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사학)가 본지의 요청으로 지난 1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1시간 동안 대담을 가졌다.

WILPF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유럽과 미국 여성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세계 최초의 국제 반전단체다. 지난 2000년 유엔 안보리가 각국 정부에 평화 구축 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한 '결의안

1325'를 채택할 때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레백 대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을 직접 방문해 평화담론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첫 방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주축이 돼 성사된 이번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세계 여성들의 평화운동 연대에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현백=올해 처음 열린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그레백=여성이나 여성운동은 아주 부드러운 주제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6자회담 등에 여성들의 참여가 필수다. 여성들이 안보와 관련한 거대 담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는 세계 각국 여성들이 그동안 안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조직하며, 행동해왔음을 보여주고, 국가를 넘어 연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현백=참가국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다. 이번 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

그레백=러시아와 중국과의 교류가 어려운 이유는 이들 나라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있더라도 대부분 정부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단체들이다. 일례로 중국의 최대 여성단체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는 비정부기구(NGO)와 정부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조금 나은 것은 WILPF 지부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현백=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 여성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레백=한국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대화를 더 빨리, 더 넓게 끌어낼 수 있다. 발칸전쟁 당시 코소보에 들어가 탁아소와 여성건강센터를 만들었다. 코소보 여성들과의 대화는 아동과 여성의 건강권 확보에서 국가의 건강 이슈로 이어졌다. 적국 세르비아 여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나중에는 이란 등 중동 사람들과 스웨덴, 호주 사람들까지 대화에 참여했다. 여성들의 대화는 정부 차원의 고위급 회담만이 아니라 저변의 일반 여성들과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서로 평등한 수준에서 대화해야 한다. 처음부터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낮은 단계라도 조금씩 축

적해나갈 때 비로소 어느 날 변화가 올 수 있다. 동독 여성들의 통일 과정이 그랬다.

정현백=몇 년 전 북측이 WILPF 행사에 공식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드문 일이다. 남북 여성교류에 WILPF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레백=아마도 WILPF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운동을 처음 시작한 100년 여의 역사를 가진 단체이고, 그동안 어느 한쪽에 서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인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정현백=각국 여성들이 6자회담 등 주요 회담이나 의사결정권 위치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그레백=각국 정부는 1995년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결정권이 있는 모든 직위 중 최소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2000년에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각국의 평화 형성과 합의·이행 과정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약속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결의안 1325'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약속들을 망각하고 있다. 여성들이 먼저 나서 계속 말하고 제기해야 한다. 이번 회의가 기폭제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한다. (swkjh@womennews.co.kr)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개성평화기행 동행취재 개성 통일거리에서 동북아 평화의 끈 잇다 - 여성신문 996호 [기획] (2008-09-05) 권지희 기자
개성공단과 시내 지날 때 차창 밖 눈 못 떼 하룻길 아이들과 손 마주 흔들며 가슴 뭉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10년을 이어온 금강산 관광은 지난 7월 12일부터 중단된 상태고,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평양 방문을 잇달아 불허하고 있다. 통일부는 “금강산 총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쪽 인사들이 대규모로 방북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대화도 끊긴 상태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던 민간교류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일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참가자 41명의 방북은 이런 악재를 뚫고 성사됐다. 비록 북측 여성들의 참여는 무산됐고 방북도 '하루 관광' 형태로 진행됐

지만, 6자회담 개최국 여성들의 개성 방문은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교류와 국제연대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 개성 통일거리 앞에서 동북여성평화회의의 개성평화기행 참가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시미즈 스미코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일본부인연락회' 대표는 "방북은 오늘로 21번째고 개성에만 10번 넘게 왔지만 한반도 평화에 뜻을 같이하는 세계 여성들과 함께 단체로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의 한반도 분단 체험은 각국 여성들에게 평화연대의 중요성과 자기 과제를 깨닫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해외 참가자들은 차창 밖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모습을 드러낸 개성공단을 지날 때는 어느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쫓긋 세우고 통역사의 설명을 들으며 바쁘게 눈을 움직였다. 개성 시내를 오갈 때는 하교 중인 아이들에게 연신 손을 흔들었다. 이에 화답하듯 아이들도 차를 향해 활짝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선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했다. 지난해 7월 미국 하원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도록 이끈 주역인 재미동포 2세 예나벨 박(한국명 박소현)은 "첫 방북인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북측 사람들을 보게 돼 놀라웠다.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인 박연폭포와 고려 말 충신 정몽주가 피살된 곳인 선죽교, 정몽주의 집터인 승양서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고려대장경 판목, 고려청자 등 고려시대 유물이 한데 모여 있는 고려박물관(고려성균관)을 둘러봤다. 박연폭포 위쪽에 위치한 관음사는 폭우로 인한

보수 작업으로 방문하지 못했다.

오후 5시 모든 관광객들이 서울로 향할 때 평화회의 참가자들은 도라산역을 방문했다.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통제선 안에 위치한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의 역 중 하나다. 이정표는 서울과 평양을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은 서울과 도라산 역까지만 운행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통일의 상징인 도라산 역에서 폐막행사를 열고, 알록달록한 천에 각국의 언어로 평화의 메시지를 적어 잇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연대의 끈 잇기'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들은 "북측 여성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모임에는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는 끝났지만 동북아 평화를 향한 활동은 이제 첫 발을 대디었다. 동북아 여성평화회의 자문을 맡은 김귀옥 한성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민간 대화가 활짝 열려야 하며,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평화교류를 여는 민간단체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이번 회의 성과와 제안을 담은 백서를 각국 언어로 번역해 보낼 것을 검토 중인데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에서 도라산 역을 방문한 평화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19년 11월 27일 '원주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된 '마을학교' 프로그램



▲ 2019년 11월 27일 '원주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된 '마을학교' 프로그램

[미니인터뷰] 당신에게 개성평화 기행은? - 여성신문

996호 [기획] (2008-09-05) 권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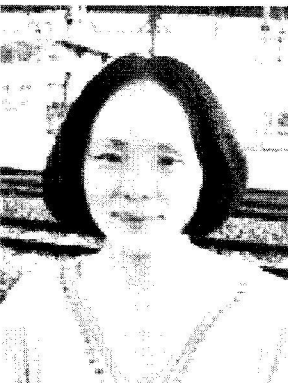


▲ 분단 내 문제의 비극

“아웃사이더 경계 허물기”

방북 경험은 여러 번 있지만 이번처럼 육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옛 소련 등 강대국의 개입이 빚어낸 비극이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은 한국전쟁의 배경을 잘 알지 못한다. 동북아 문제에서 미국인은 아웃사이더다. 그러나 오늘 DMZ를 넘으며 이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앞으로도 남북 화해를 돕는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 분단 내 문제의 비극

“분단의 비극 내 문제로”

생애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밟고, 북측 사람들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비록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의 분단 비극이 내가 겪고 있는 비극으로 느껴졌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을 받으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인들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어떤 조직과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구체적 행동지침을 만들어 전달할 것이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세계 여성들을 묶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겠다.



▲ 서민소 6개국 여성 모임의
과장인 서민소 회장님
의 모습

“6개국 여성 역할 재확인”

1972년 첫 방북 이래 오늘로 21번째다. 개성에도 여러 차례 왔었는데 남성 안내원은 오늘 처음 만났다. 북측 남성 안내원과 남측 여성들이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빨리 이뤄졌어야 할 보통 모습인데 여전히 특별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반도 분단 문제 해결은 6개국 여성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다. 일본과 북측이 자유 왕래하는 날이 올 때까지 역할을 다하겠다.



▲ 평안남도 여성민중모임
자주 찾아오는 유대애씨

“민간 여성교류의 힘 발견”

평소 동북아 평화나 여성 국제연대에 대해 알거나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대부분의 중국 여성들이 그렇듯 6자회담은 정부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참여와 개성 방문을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다. 민간 여성들도 교류를 통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다. 중국에 돌아가면 더 많은 여성들과 공감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해볼 계획이다.

(swkjh@womennews.co.kr)

◆ 평가자료집 제작에 참여한 이들

▶ 활동가

유복님(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국장) - 사무국장

김현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 - 집행위원

김선량(평화를만드는여성회 총무부장)

오영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보간사)

▶ 영상물 제작

최안진경(영상제작 전문가, 프리랜서)

▶ 진행사회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집행위원장

▶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운영위원장

김귀옥(한성대 교수) - 자문위원

권지희(여성신문 기자)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운영위원장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 자문위원

최원형(한겨레신문 기자)

한정숙(서울대 교수) - 추진위원

